

교황 “세월호 가슴 아파...평화는 정의의 결과”

“한반도 평화 마음에 담아왔다” 방한 4박5일 일정 시작
박 대통령 공황 영접... 오늘 성모승천대축일미사 집전

‘가난한 자의 빛’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와 화해, 치유의 메시지를 안고 한국 땅을 밟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5일의 역사적인 한국방문을 위해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교황으로는 역대 세 번째 한국 방문이다. <관련기사 2·3·4면>
교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영수정 추기경 등의 영접을 받았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교황 방한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지고 분단과 대립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릴지 바란다”는 인사말에 대한 화답이었다.

공황 환영행사에는 한국 사회에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비롯한 천주교 평신도 32명도 참석, 눈길을 끌었다. 환영단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명을 비롯해 새터민, 필리핀과 볼리비아 출신 이주노동자, 범죄피해자 가족모임 ‘해밀’ 회원, 장애인, 시복대상자 후손, 외국인 선교사, 수도자 대표 등이 포함됐다.

열한 시간이 넘는 긴 비행에도 교황은 환영 행사 내내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밝은 얼굴로 평신도들과 인사하던 중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소개받자 원수를 가슴에 얹고 슬픈 표정을 지어보이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교황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우진(12·최승원(8) 남매가 꽃다발을 건네자 남매를 껴안고 “진절해서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며 공항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및 대통령 면담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첫 일정을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주요 일정

15일(금)	10:30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집전 (세월호 참사 유족 위로)
	17:30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16일(토)	10:00 124위 시복미사 집전
	16:30 꽃동네 장애인 요양시설 방문
17일(일)	11:00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
	16:30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박 대통령은 면담 후 환영연설에서 “전 세계 12억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님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와 우리 국민에게 큰 축복”이라며 “저와 우리 국민은 이번 교황님의 방한이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에 희망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님께서 아시아 지역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에는 한국 천주교회의에 대한 교황님의 각별한 애정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심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공직자들에게 한 방한 후 첫 연설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절실한 대의”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면서 “정의는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라는 요구로, 우리 모두 평화 건설에 헌신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결의를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날 주요 공직자들과의 만난 데 이어 한국 주교단과의 만남을 갖고 첫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희생자 기억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영 나온 인사들 중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인사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김무성 대표 ‘호남 끌어안기’ 금리 2.25%

광양 순천시 최고위원회의 “이정현 의원 약속 ‘예산폭탄’ 불발탄 되지 않게 최선”

새누리당이 그동안 불모지였던 호남을 끌어안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호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김무성 대표 취임이후 호남지역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는 지난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 당선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당 차원에서 진심을 담아 호남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이른바 이정현 의원의 ‘예산폭탄’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도 분석된다.
이 때문인지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

는 앞다퉈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장담했다. 그동안 ‘영남당’으로서 호남에 소홀했다는 자기 반성도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순천과 곡성 유권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뤄냈다”면서 “한없이 높게만 보였던 지역구도의 벽을 넘어 통합과 화해의 마음의 문을 우리 새누리당에 열어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 동안 호남인들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 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작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 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이정현 최고위원을) 예결위에 특별히 배정했는데, 선거 기간에 약속한 ‘예산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강철같은 정벽으로 느껴지는데 호남인들의 위대한 정신이 마침내 이 철벽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정현 의원의 공약이 현실이 되도록 정책위와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면서 “오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예산 당정을 열고 이 지역 뿐 아니라 전남·광주·전북 전체 예산을 쟁겨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원회 호남 개최 약속을 지켜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제는 지역발전 위해 하나가 되자”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심정과 뜻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역발전과 정서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금리 2.25%

한은 인하, 46개월만에 최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됐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직후인 작년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서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1개월을 빼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내리고서 17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2011년 6월 3.25%로 연이어 인상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세월호 침몰 4개월
진도 평독항에 남은 사람들 ▶6면
우치공원 ‘동물 애정촌’
얼룩말의 질투...연적에 뒷발차기 ▶7면

NEW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화장품법 제2014년 11월 15일)

한울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워진 한울 울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우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인체 실험 결과: 전후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차이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빠져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4. 피부가 맑고 깨끗해졌다	99%
5. 단색이 자물라 탱탱해진다	98%		

*인체 실험 결과: 전후 갈색 솔잎 추출물 농도 차이

한국어: 062-605-0956, 062-605-0956, 062-605-0956, 062-605-0956
www.pms.com, www.pms.com, www.pms.com, www.pms.com
*고객상담실 (062-605-0956)